

死에 對한 研究(一)

韓稚振

一. 死의 問題

사람들은 너무 살을다고만 애쓰는 까닭에 그 生에 反面에 있는 死의 事情을 알아볼 時間이 업섯다. 웨 生死는 췌췌한 兩種現狀이거늘 生만 알려고 하고 注意들 했지만은 死에 對하여서는 알려고 別로 잘하지 안이 했슬가? 아니 死에 對하여 누가 論斷을 한다하면 耳目부터 기우리기를 □한다. 實로 나 한번 當하여야 할 最後의 經驗이요 最後의 冒險인 것이다. 그런 즉 웨 生하는 問題와 갓치 死하는 問題에도 研究할 必要가 업슬가? 우리는 死에 對하여 怯낼것업다. 우리는 生하는 問題와 갓치 死하는 問題에도 熱心을 내여 研究하여 死에 對한 過去에 誤□된 意見과 □□를 除去할 것이다. 그럼으로 우리는 이 아래에 죽는 그 일을 論究하면서 엇더케 하여야 死를 意味 있게 할가 췌는 死를 엇더케 좀 덜 苦痛스럽게 할가하는 것을 科學的 立脚地에서 論述코저한다.

二. 科學으로 본 死生

엇던 學者의 □□에 依하면 一年에 □四千萬 者이라는 人口가 죽어 쌍에 못친다고 한다. 다시 말하면 百萬□의 人類의 骨肉이 더 쓸데가 업서 □□해버린다는 말이다. 비록 이러케 多量의 人肉이 췌어서 업서지게 하는 死라는 動作에 對하여 사람의 才□은 아직 무엇이라고 定義해 놋치 못하였다. 單只 사람은 다른 生物들과 가티 生하고 長하고 老하여 死□하는 것 췌이라고나 알 췌이지 死後에 되는 일에 對하여서는 아직 漠然하다. 더구나 死를 □□하고 잇는 宗教들 까지도 只今에 와서는 死後에 일보다 生前의 道德問題에 만히 焦心하고 잇다. 웨 生하며 長하며 老하며 하다가 死하는가? 死의 原因은 무엇이며 大概 死라는 것은 무엇이나?

普通 사람은 말하기를 死는 生의 淸 다음에 오는 것이라 하나 이 亦是 生의 反面에는 死가 잇다는 說明췌이요 死의 性質을 □명한 것이라 할 수 업

다. 『스펜서』는 死를 定義하되 內界와 外界와의 關係를 □理하는 것은 生이요 그 □理의 缺□은 死라 하였다. 그러나 왜 生命은 外界와 內界와의 關係를 □節하여야 살게 되었으며 또 □□치 못하는 境遇에는 死하며 또는 死하면 아조 永久的으로 無滅이 되고 마는가? 『헉슬리』와 『쿠비어』 兩 氏는 生死의 進行을 旋永(소용도리)에다가 비겼다. 물이 뭉쳐 썩쟁 돌 썩에는 生과 갓고 그 뭉쳐든 물이 헤어질 썩에는 死와 갓다하였다. 이 生의 旋永的 作用은 어린 兒가 배일 썩부터 始作하여 長成할 썩까지는 其 勢力이 增加하고 其後부터는 □□□하야 老□하고 만다하였다.

『오스터하우』敎□는 主張하기를 어느 生物이든지 그 半分은 死하여 있다. 하였다. 그 證明으로는 生命의 抵抗力과 無 抵抗力의 兩種形狀을 □示하였다. 假令 一種淡水生物을 잡아서 □水에 入□하였다가 얼마 後-生物의 그 抵抗力의 分을 다 넘어가기 前에-다시 淡水에 넘어둔 즉 □생한다하였고 萬一 其 抵抗力의 分을 훨씬 넘어가서 無 抵抗力 分에 入한 後에는 그 生物은 무엇을 莫論하고 死하는 分과 生하는 分의 並合으로써 構成이 되었다하였다.